

# 버질 아블로 유작 '프로젝트 마이바흐' 한국 온다

〈루이뷔통 그룹 최초 흑인 수석디자이너〉

### 벤츠코리아, 15일 서울패션위크서 국내 첫 공개 럭셔리 전기 오프로드 쿠페 디자인 과정 등 전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최초의 흑인 수석디자이너였던 고(故) 버질 아블로의 유작인 쇼카(전시용 차) '프로젝트 마이바흐'(Project MAYBACH)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2023 F/W 서울패션위크'를 맞아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 고(故) 버질 아블로의 유작인 전기 쇼카 '프로젝트 마이바흐'의 팝업(POP-UP) 및 전시를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오프로드 환경 속의 전통적인 어반 브랜드(urban brand)를 표현한 2인승 전기 오프로드 쿠페 '프로젝트 마이바흐'는 미래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아티스트이자 건축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와의 두 번째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특별한 모델이다.

버질 아블로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총괄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와 함께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럭셔리 정체성을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해석하고 기능과 스타일, 창의성의 경계를 확장해 창조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2021년 공개를 앞두고 버질 아블로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유족들의 뜻에 따라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루벨 박물관(Rubell Museum)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팝업을 통해 프로젝트 마이바흐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내 최초로 패션리더들에게 먼저 선보이게 됐다.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울림 스퀘어 공간에서 진행되는 팝업 부스와 전시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마이바흐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을 서울에



서 장식한다. 서울패션위크에서 선보일 '프로젝트 마이바흐' 팝업 부스 및 전시는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아웃도어 어드벤처'(Outdoor Adventure)를 테마로 마련된다.

차량과 함께 버질 아블로의 영감을 담은 역동적인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생선 버질 아블로의 차량 디자인 과정을 담은 영상과 스케치 등이 1층에 전시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차량 전시를 넘어 버질 아블로의 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5일 열리는 '2023 F/W 서울패션위크'에서 고(故) 버질 아블로의 유작 '프로젝트 마이바흐'를 국내에서 처음 공개한다. 사진은 버질 아블로의 유작인 쇼카 '프로젝트 마이바흐'.

솔 세계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팝업 부스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은 차량 전시와 함께 브랜드 '오프 화이트'와 협업한 다양한 상품 등을 관람, 체험할 수 있다.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버질 아블로의 천재적인 디자인 세계를

통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혁신과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마이바흐'의 실물을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하게 돼 뜻깊다"며 "다음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고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인 만큼, 이번 팝업 전시가 국내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패션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논의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 F/W 서울패션위크'는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 국내 최대 수주박람회인 트레이드쇼,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그룹 '뉴진스'가 활동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신차 만나 보세요



## 중형차급 신기술·편의사양 '더 뉴 아반떼'

현대자동차는 대표 중형형 세단 아반떼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반떼'〈사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반떼는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중형차급에 준하는 신기술과 편의사양으로 무장하고 국내 중형형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할 상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 모델에 녹여져있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그래픽 요소를 확장해 보다 낮고 와이드한 아반떼의 비례감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외장 색상은 ▲메타 블루 펄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등 3종의 새로운 색상과 함께 ▲어비스 블랙 펄 ▲아틀라스 화이트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플루이드 그레이 메탈릭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인텐스 블루 펄 등 총 9종이다.

내장은 환경을 고려해 바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신규 색상 '세이지 그린'과 함께 ▲블랙 원톤 ▲캐슈미어 베이지 등 3종으로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는 등 안전성도 강화했다. 고강성 경량 차체에 8개 에어백이 탑재됐고, 전방·후측방·후방 충돌방지 보조에 더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적용했다.

또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을 차차 고객을 위해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의 편의사양도 제공했다. 여기에 등급 최초로 디지털 키 투 터치를 적용해 스마트폰 차량제어 범위를 아이폰까지 확대했고, 주행상황을 녹화하는 빌트인 캠도 탑재했다.

더 뉴 아반떼는 스마트스트림 기술인 1.6, LPI 1.6, 하이브리드 1.6 등 3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이 트림별로 1960만~2671만원이며, LPI 1.6 모델은 2099만~2797만원, 하이브리드 1.6 모델은 2578만~3203만원 선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반떼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젊은 감각을 지닌 고객층 모두를 만족시킬 차"라며 "중형차급의 안전·편의사양을 적용해 차급을 뛰어넘는 이동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1회 충전에 410km 주행 '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현대자동차는 최근 '더 올 뉴 코나 월드 프리미어'〈사진〉영상을 통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코나 일렉트릭의 주요 사양을 소개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은 이달 말 열리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첫선을 보인 후 다음 달 국내 출시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3,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한다. 동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비 최장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임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차세대 현대차 SUV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먼저 외장을 살펴보면 신형 코나와 마찬가지로 픽셀과 혼합된 수평형 램프를 갖췄고, 측면부의 캐릭터라인과 아머(Armore) 형상의 휠 아치,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스포일러와 보조제동등으로 볼륨감과 날렵함을 모두 강조했다.

아울러 범퍼부터 후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 동급 SUV 대비 우수한 0.27의 공력계수(Cd)도 달성했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잇고, 전자식 변속 레버를 스티어링 휠로 옮기면서 공간이 한층 넓어졌다.

코나 일렉트릭은 최근 강화된 충돌 안전기준 대응을 위해 도어 열림부와 센터 휠라의 강성을 보강하고, 후면 바다 끝조에 고강도 핫스탬핑 소재를 당사 최초로 적용했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 안전 사양들도 기본 탑재됐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에 파워트레인의 폐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고효율 히트펌프와 능동적으로 전력을 조절해주는 고전압 PTC히터를 적용해 전기차에 최적화된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빌트인 캠 2 등도 등급 최초로 탑재시켰다.

급속 충전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과 충전 잔여량에 따라 주행가능거리를 중심으로 공조를 최적화해주는 주행거리 중심 공조 제어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금호타이어는 최근 곡성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김용훈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장, 문종길 금호타이어곡성지회장,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와 곡성군은 각종 지역 행사 참여 및 홍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용훈 공장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02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수용품 전달 등 '이웃사랑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매년 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마세라티 봄맞이 무상점검

31일까지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봄을 맞아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8개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2023 마세라티 서비스스프링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하반기 '한경수입차서비스지수' 종합평가에서 렉서스가 1위에 오른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날들이 시즌인 새봄을 맞이해 최적의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모든 마세라티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등 총 12종의 무상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증정하며, 일반 수리 고객에게는 일반 수리 부품과 공임 비용의 10% 할인이 적용된다. 마세라티 액세서리와 머천다이즈 부품도 20% 할인 판매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서비스 1위' 기념 특별서비스

렉서스코리아 29일까지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특별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하반기 '한경수입차서비스지수' 종합평가에서 렉서스가 1위에 오른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어컨 필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에어케어 ▲와이퍼 리바-블레이드 등에 대해 부품 및 공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브리지스톤 타이어에 한해 신차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OE)와 동일한 제품의 경우 20%, 교체용 타이어(RE)의 경우 10% 할인된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